

칼 융의 개성화의 영적 여정으로서의 중독 익명의 모임 12단계

2026년 4월 5일

Carl Jung and Alcoholics Anonymous. *The Twelve Steps As A Spiritual Journey of Individuation*

생각해 볼 질문: "사람은 왜 도덕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가?"

1. 욕망과 이익의 충돌

도덕적 기준 (이렇게 해야 한다)

욕망과 이익 (이렇게 하고 싶다)

예: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말

남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돈 때문에 사기

2. 자기합리화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다들 그렇게 한다"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 즉 도덕을 어긴 후에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합리화라고 한다.

3. 무의식의 영향

Carl Gustav Jung 은 인간 안에 "그림자(Shadow)"가 있다고 보았다.

그림자란 공격성, 질투, 탐욕, 권력 욕망같이 의식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이다.

문제는 인정하지 않을수록 더 강하게 행동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4. 집단과 사회의 압력

사람은 개인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조직이 부패하면 개인도 따라감

주변 사람들이 다 하면 죄책감이 약해짐

집단 따돌림

개인의 도덕보다 집단 규범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5. 두려움

도덕을 지키려면 때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 내부 고발 → 직장 잃을 수 있음

부당한 권력에 저항 → 처벌 가능

그래서 사람은 종종 양심보다 안전을 선택합니다.

6. 인간의 불완전성

예: 기독교 → 원죄

불교 → 탐·진·치 (탐욕, 분노, 무지)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을 지키기 어렵다고 본다.

융은 윌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로울랜드 해저드의 운명에 대해 "종종 궁금해했다"고 언급했지만, 그의 자서전 『기억, 꿈, 사상(Memories, Dreams, Reflections)』(Jung, 1985)에는 로울랜드와 유사한 한 환자—혹은 여러 환자들의 복합적 형상—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 예컨대, 한 미국인 동료가 '불치의 알코올 신경쇠약(alcohol neurasthenia)'이라는 진단과 함께 환자를 융에게 보냈다는 대목이 있다. 그 의사는 또한 그 환자에게 "내가 시도하는 치료는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베를린의 신경학적 권위자를 찾아가 보라고 조언했다고 한다(Jung, 1985, pp. 141–142).

흥미롭게도, 로울랜드 역시 처음에는 비엔나에서 프로이트를 찾아가 보라는 조언을 받았으나, 프로이트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결국 당대에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던 다음 정신과 의사, 칼 융을 방문하게 되었다(Bluhm). 융은 로울랜드와 더욱 유사한 또 다른 환자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옥스퍼드 그룹의 한 구성원이 치료를 받기 위해 나를 찾아오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옥스퍼드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그 문제를 옥스퍼드 그룹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나는 예수보다 더 잘할 수 없습니다.'

(CW 18, §620)

이와 관련하여, 용은 다음과 같은 사례 보고(case presentation)를 제시한다.

한 히스테리성 알코올중독자가 이 집단 운동에 의해 치유되었고, 그들은 그를 일종의 본보기로 삼아 유럽 전역을 돌게 했다. 그는 곳곳에서 매우 훌륭하게 고백을 했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말하곤 했다.

그는 이 집단 운동을 통해 치유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이야기를 스무 번, 혹은 오십 번쯤 반복해서 하다 보니, 그는 그것에 싫증을 느끼게 되었고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 영적 감각(spiritual sensation)은 그저 사라져 버렸다. 이제 그를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그는 병리적인 상태이니 의사에게 가야 한다." 보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에 의해 치유되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의사에 의해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사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제로 거절했다.

나는 그 사람을 다시 그 집단으로 돌려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예수가 이 사람을 치유했다고 믿는다면, 예수는 두 번째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하는 바다. 사람이 병리적인 상태가 되면 예수는 더 이상 그를 돕지 못하고, 의사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CW 18, §621)

한 사람이 옥스퍼드 그룹(Oxford Group) 운동을 믿는 한 그는 그곳에 머문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가톨릭교회 안에 있는 한, 좋은 나쁜든 그는 가톨릭교회 안에 있으며, 그 수단을 통해 치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건대, 나는 실제로 그들이 그러한 수단을 통해 치유될 수 있음을 보아 왔다—그것은

사실이다! 고해성사(Absolution)와 성찬(Holy Communion)은 매우 심각한 사람의 경우에도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

(CW 18, §622)

금주를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집단에 대한 용의 언급은 풍자(parody)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즉, 회복 중인 알코올중독자이자 A.A.의 구성원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이 재발(relapse)할 경우, 그 연관성 때문에 사람들은 A.A.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아마도 회복을 전도하듯 알리다가 '미끄러진(slips)' 유명 인사들에 대한 이와 같은 풍자적 사례들이, A.A.가 언론·라디오·영화의 차원에서 익명성(anonymity)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도록 자극했을 것이다. 익명성의 원칙은, 금주를 이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매체의 주목 속에서 과시하며 자아(ego)를 키우는 대신, A.A.의 영적 원칙들에 충실하도록 구성원들을 이끈다.

생각해 볼 질문

- ① 왜 어떤 사람은 영적 체험 후에도 재발하는가? 많은 회복자가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영적 체험과 영적 성숙은 무엇이 다른가?
- ② 왜 공개적인 간증이 위험해질 수 있을까? 사람은 처음에는 증언(testimony)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그것이 자아를 키우는 무대가 될 수 있다. 회복 간증은 언제 영성이고 언제 자기 과시가 되는가?
- ③ 왜 A.A.는 익명성을 강조했을까? Alcoholics Anonymous 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익명성의 의미는 단순히 신분 보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왜 회복 과정에서 자아 팽창이 위험한가? 영적 회복과 겸손은 어떤 관계인가?

성찰 질문

- ① 나는 영적인 감동이나 특별한 경험만 찾고 있는가, 아니면 그 경험이 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도록 살아가고 있는가?
- ② 나는 회복 이야기를 왜 하는가? 나는 왜 내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섬김인가 아니면 인정

욕구인가?

③ 나는 무엇을 통해 나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려 하는가? 중독이 끝나도 사람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아를 키우려 합니다. 나는 회복을 통해 겸손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특별해지고 싶은가?

"나는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가?"

영적 체험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지만 자아는 그 체험조차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관계), 익명성, 겸손이 필요하다.

빌 윌슨의 LSD 실험

A.A. 본부 내부에는 여전히, 빌이 용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둘러싼 상당한 보호적 태도가 존재한다. 이는 빌의 편지 세 번째 쪽에서, 프로그램의 영적 측면에 어려움을 겪는 알코올중독자들을 LSD로 치료 하자는 자신의 입장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윌슨이 생애 마지막 15년 동안 A.A. 바깥에서 기울인 주요한 노력은, 일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마음을 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던 정신적·심리적·신체적 장애들을 제거하려는 시도였다."

(Kurtz, 1991, p. 137)

생화학자이자 정신의학 교수인 에이브럼 호퍼(Abram Hoffer)와 정신과 의사 험프리 오스몬드(Humphrey Osmond)는, 알코올중독 치료에 LSD를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한 새로운 희망(New Hope for Alcoholics)』(Hoffer & Osmond, 1968)을 공동 집필했다. 이들은 우연히 LSD가 알코올중독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원래 이들은 LSD를 조현병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었고, 그것이 "섬망 진전(delirium tremens)과 매우 유사한 상태"를 유발한다고 생각했다(Anon, 1991b, p. 369). 일종의 파블로프식 행동 훈련으로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경고 효과를 주기 위해 섬망 진전과 같은 상태를 유도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다소 아이러니하게도, 알코올 중독자들은 LSD 경험을 실제로 즐겼으며, 섬망 진전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그 경험을 "깨우침을 주는(illuminating)" 것으로 보고했다. 이에 호퍼와 오스몬드는, LSD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금주를 돕는 영적 경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책에는 LSD로 성공적으로 치료된 알코올 중독자들의 여러 사례 연구가 인용되어 있다.

호퍼는 이러한 결과를 빌 윌슨에게 알렸고, 처음에 빌은 "극도로 불쾌해했고, 알코올 중독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이후 윌슨은, 호퍼와 오스몬드가 얻고 있던 치료 성공률이 A.A.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다. 윌슨은 만약 LSD가 알코올 중독자에게 초월적 경험(transcendence)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들이 술을 마실 때 사실상 '그 목적을 위해 잘못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Kurtz, 1991, p. 136). 다시 말해, 알코올을 사용해 그들은 저급한 수준의 영적 경험을 얻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빌 윌슨은 더 깊이 조사에 나섰고, 결국 에이브럼 호퍼의 환자가 되었다. 그는 LSD가 합법이던 1956년, 그 약물을 복용했다.

빌 윌슨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재향군인 행정병원(Veterans Administration Hospital)에서 정신과 의사 시드니 코언(Sidney Cohen)의 의학적 감독하에 LSD를 복용했다(Lattin, 2012, p. 195). 그의 오랜 비서였던 넬 윙(Nell Wing)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초기 영적 체험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영적인 경험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활동을 비밀로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이야기를 널리 전하고 싶어 했다."

(Anon, 1991b, p. 371)

빌은 아내 로이스(Lois)가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설득해 LSD를 복용하게 했고, 그 결과 그녀가 "이 정도로 가벼운 투여만으로도 전반적으로 매우 큰 호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빌은 세일즈맨이었고, 분명히 LSD의 효용성에 스스로 설득되어 있었다. 그러나 로이스 본인은 이렇게 회상했다.

"빌이 나에게 약을 주었어요. 사실 나는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물들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는 했지만, 색이 더 선명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지각이

더 예민해진다고들 하지만, 나는 원래 자연을 관찰하는 사람이었고, 늘 사물을 자세히 바라보곤 했거든요."

이로 미루어 보면 빌이 LSD에 대해 맹목적인 옹호자였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는 독단적인 인물은 아니었으며, 이후 이렇게 썼다.

"물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확신들 역시 여전히 크게 변할 수 있는 것들이다."

1957년, 윌슨은 저명한 철학자이자 작가인 제럴드 허드(Gerald Heard)에게 LSD 사용을 통해 자신이 얻은 개인적·심리적 이득에 대해 편지를 썼다. 그는 우울감의 완화, 그리고 더 커진 자각과 아름다움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그 효과로 언급했다(Lattin, 2012, p. 183).

1958년 6월, 윌슨은 자신이 처음 금주를 얻게 된 캘버리 교회의 목사 샘 슈메이커(Sam Shoemaker)에게 LSD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장문의 편지로 정리해 보냈다(Anon, 1991b, pp. 373–375). 빌은 LSD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고, 이 편지에서 알코올중독 치료에 LSD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의 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나는 여러 차례 라이서직산(LSD)을 복용했고, 그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오늘날 대중은 LSD가 위험천만한 새로운 정신의학적 장난감이라고 믿도록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LSD가 조현병을 유발한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이는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난 3~4년 동안 호퍼와 오스몬드는 아마도 약 400명에 이르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LSD를 투여해 왔습니다. 광범위한 녹음 기록 또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례들은 생화학적, 정신의학적, 그리고 영적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다시 말해, 어떤 해로움의 기록도 없었고,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신체적 위험 역시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물질은 아스피린만큼이나 무해한 것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빌은 "바로 그들과 함께, 나는 2년 전 처음으로 이 약을 복용했다"고 적었다.

빌은 또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썼다.

"기도, 금식, 명상, 절망 등 고전적 신비 체험에 이르게 하는 여러 조건들에는, 그에 상응하는 화학적 구성 요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화학적 조건들은 일상의 자아 충동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그만큼 더 넓은 지각의 문을 열어 준다."

그러나 빌은 예언적으로 LSD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LSD는 오직 연구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이 약물이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 효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일반 대중에게 풀리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엄청난 불행이 될 것이다."

결국 LSD는 실제로 '일반 대중에게 풀리게' 되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강사였던 티머시 리어리(Timothy Leary)는, 빌이 LSD와 관련해 진행하던 작업에 자신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빌은 리어를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서는 분별력을 보였지만, 1961년 그에게 편지를 보내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가 그의 작업을 "열정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LSD와 몇몇 유사한 알칼로이드들이 엄청나게 나쁜 언론 보도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막대하고 점점 커지는 가치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Lattin, 2010, p. 67)

이후 리어리는 취약한 젊은 탐구자들에게 "켜라(turn on), 몰입하라(tune in), 그리고 체제에서 벗어나라(drop out)"라고 부추기게 된다.

많은 이른바 '히피 세대'가 LSD를 오남용하며 불법 약물과 함께 복용해 더 강한 '황홀감'을 추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언론이 LSD를 자살과 영구적 정신이상과 연결시키는 선전적 광풍을 일으켰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만약 빌이 리어리와 연관되었다더라면, 이는 A.A.의 명성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크다.

빌 윌슨이 LSD를 실험했던 것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기 위한 더 많은 방법을 찾고자 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특히 그는 A.A. 안에서 금주를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 '영적인 것을 붙잡지 못했던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고자 했다.'

1961년 4월, A.A. 잡지 『그레이프바인(Grapevine)』에 글을 쓰며 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25년 동안 30만 명이 회복되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50만 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가, 다시 떠나갔을지도 모른다."

윌슨은 답을 찾기 위해 찾아왔던 이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이 가능했을까도 모른다는 좌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내 로이스에 따르면, "빌의 가장 큰 희망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술을 끊고 싶어 하지만 A.A. 프로그램을 붙잡기에는 너무 병든 상태에 있는 수천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속박에서 풀려나 A.A.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었다."(Kurtz, 1991, p. 358, 주 7)

이러한 배경과 자신의 LSD 복용 경험에 기반해, 윌슨은 다소 순진하게 1961년 3월 칼 용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 알코올중독 치료에 LSD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그의 의견을 구했다. 그러나 이후 살펴볼겠지만, 빌 윌슨은 LSD 사용에 대해 용이 지니고 있던 단호한 반대 입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용은 LSD를 메스칼린과 유사한 물질로 보았으며, 이러한 환각적·의식 확장 약물의 사용은 진정한 영적 경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생각해 볼 질문

- ① 영적 경험은 의도적으로 유도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삶의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인가?
- ② 영적 체험과 영적 변화는 무엇이 다른가? 강렬한 초월 경험이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가? 아니면 일시적 체험에 그칠 수 있는가?
- ③ 중독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용은 알코올 갈망을 "온전함을 향한 영적 갈망의 낮은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왜 술이나 약물을 통해 초월 상태를 찾으려 할까? 그것은 어떤 결핍을 드러내는가?
- ④ 약물로 얻은 초월 경험은 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가? 약물이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의존을 만들 위험이 있는가?

- ⑤ 왜 어떤 사람들은 영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울까? 그것은 심리적 방어인가, 상처인가?
- ⑥ 중독 회복에는 영적 각성이 반드시 필요한가? 아니면 다른 길도 존재하는가?
- ⑦ 나는 무엇을 통해 의식을 확장하려 하는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현실을 넘어서는 경험을 찾는가? 그것은 성장인가, 도피인가?
- ⑧ 나는 변화보다 체험을 더 원하고 있는가? 나는 강렬한 경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LSD 에 관한 칼 융에게 보낸 빌 월슨의 두 번째 편지

1961년 3월 20일 자 빌의 두 번째 편지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기밀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으로 시작된다 (Anon, 1991b, pp. 385-386). 이 편지에는 알코올중독이 영적 탐색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융의 이해에 대한 존중과 감사가 담겨 있다. 월슨은 이어서 융의 저서 『영혼을 찾는 현대인(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에 대한 호의적인 요약을 제시한다. 또한 이 편지는 현대적 장비를 사용해 심적(정신적) 현상을 측정할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편지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논쟁적인 대목은, 알코올중독자들이 영적 경험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라이서직산 디에틸아미드(LSD)의 사용에 대해 융의 의견을 요청한 부분이었다.

존경하는 융 박사님께,

당신의 감동적인 편지를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감정과 관점 면에서, 사려 깊은 A.A. 구성원 다수의 시각을 매우 충실히 강화해 주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언제까지나 소중한 보물로 간직할 것입니다.

수년 전, 우리 중 일부는 당신의 『영혼을 찾는 현대인』이라는 책을 큰 유익을 얻으며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당신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 점을 관찰하셨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흔 즈음에 이르러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주 속에서 다음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점점 더 심각한 신경증적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

니다.

이러한 당신의 견해는 우리 A.A. 공동체 초기 구성원들 가운데 일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가 한때 간혀 있었던 막다른 상태를 정확히 묘사했음을 보았고, 동시에 우리가 여러 차례의 영적 각성을 통해 그 상태에서 구출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영적 경험'은 우리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핵심 열쇠였습니다.

우리는 알코올중독자의 무력감이 오히려 결정적인 이점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를 인정함으로써 그는 깊이 꺾이게 되고, 그 결과 재동기화된 회심 경험의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모든 점들은, A.A.가 형성되던 시기에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위대한 도움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언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2 장

A.A.의 기원: 빌 윌슨의 마지막 음주와 회복

앞서 언급했듯이, 로울랜드 해저드(Rowland Hazard)는 1926년 스위스 쿠스나흐트(Küsnacht)에서 칼 융의 환자였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로울랜드는 융의 조언을 따랐고, 옥스퍼드 그룹(Oxford Group)이라 불리는 복음주의적 조직에 가입했다.

옥스퍼드 그룹에 합류한 후, 로울랜드는 일시적으로 금주에 성공했다. 1934년 8월, 로울랜드는 친구 에드윈 대처(Edwin Thacher)—별명 '에비(Ebby)'—가 버몬트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정신병원에 수용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로울랜드와 옥스퍼드 그룹의 동료들, 그리고 에비의 사촌 케브라 그레이브스(Cebra Graves)는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케브라의 아버지이자 판사였던 셉 코넬(Shep Cornell)

판사는 에비의 수용 결정을 유예(suspend)했고, 에비에게 술을 끊으라고 명령했다. 케브라는 에비를 캘버리 미션(Calvary Mission)으로 데려갔고, 이후 에비는 맨해튼 이스트사이드에 위치한 캘버리 미션에서 숙식하며 생활하게 되었다.

에비는 옥스퍼드 그룹의 지침을 따른 지 몇 달 후, 빌 월슨에게 자신의 새로운 발견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오래된 학창 친구이자 한때 술친구였던" 빌 월슨을 찾아가기로 했다. 에비는 브루클린 클린턴 스트리트(Clinton Street)에 있는 빌의 집 부엌에서 그를 만났다(Anon, 2011, p. 36).

월슨은 1895년 11월 26일에 태어났으며, 이 날은 훗날 그가 매년 기념하는 회복의 생일이 되었다. 다만 그해 11월에 그는 이미 술을 마시고 있었고,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물론 그는 저녁 식사를 먹었고, 나는 술에 취해 있었다. 나는 그를 내 거실로 데려가 안락의자에 앉혔다. 에비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들어봐, 빌. 내가 종교를 찾았어'" (Anon, 2011, p. 36).

빌은 많은 활동성 알코올중독자들처럼 종교에 대해 냉소적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가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 이상으로 깊이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인류의 종교들이 전체적으로 보아 정말로 선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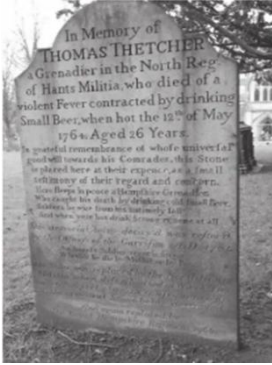
(ibid., p. 37)

1934년 11월의 어느 오후, 두 사람은 빌의 지하실 부엌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무렵 에비는 1910년에 빌을 처음 만났고, 이후 수년간 알고 지냈으며, 1917년 영국에 상륙해 함께 윈체스터 대성당(Winchester Cathedral)을 방문했던 일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에비는 스물두 살이었다.

빌은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몹시 감동을 받아 밖으로 나왔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어느 늙은 묘비에 적힌 조약한 시구였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에 한 햄프셔 척탄병이 잠들어 있다.
 그는 죽음을 맞이했다,
 차가운 맥주를 마시다.
 좋은 병사여, 잊히지 않으리라.
 그가 총에 맞아 죽었든,
 술에 의해 죽었든."
 (Anon, 1991a, p. 1)

빌은 훗날 윈체스터 대성당 묘지에서의 이 순간을 "내가 귀 기울이지 못했던 불길한 경고"였다고 회상했다(Anon, 2011, p. 33). 그는 에비와 함께 술을 마시던 그날 밤에도 이 장면을 기억해냈다고 말한다.

이 대성당에서의 경험이 빌에게 지닌 실제적 의미는 그에게 뒤늦게 다가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무릎을 꿇고 신을 찾고자 하는 겸허한 의지를 품었고—

그리고, 신은 찾아왔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분의 임재는 세속적인 허영, 특히 나 자신의 허영에 의해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늘 그랬다. 내가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이었다.

(Anon, 2011, p. 38)

흥미롭게도 이 묘비에 적힌 성은 대처(Thetcher)이며, 이는 빌이 이 묘비에 끌렸던 이유를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 그는 이 인물이 가까운 친구 에비 대처(Ebby Thacher)의 조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Anon, 1991b, p. 60).

그로부터 17년 뒤, 에비 대처는 다시 한 번 빌의 삶에 등장하여, 옥스퍼드 그룹의 원칙들을 설명하고 그에게 회복의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심어 주었다. 빌은 이렇게 회상한다.

"그 시기에 우리는 공통의 고통이라는 친족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었다. 한 명은 알코올중독자, 다른 한 명은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한 알코올중독자였다"

(Anon, 2005, p. 59)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에비가 그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풀어놓았다는 점이었다. 빌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그 '기적'을 직접 내 부엌 식탁 위에서 보여 주었다.”

빌은 자신의 생각을 다시 돌아보며, 어쩌면 "종교적인 사람들이 옳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Anon, 2011, p. 37).

1934년 12월 8일, 에비의 말에 깊이 흔들린 빌은 Oxford Group 본부를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고, Calvary Mission으로 향했다. 그는 브루클린 지하철을 타고 맨해튼의 서쪽 23번가에 도착했다. 긴 걸음 끝에 트웬티서드 스트리트에 이르렀고, 도중에 술집이 보여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오후 대 부분을 그렇게 보내 버렸고, 자신이 왜 그곳에 가고 있었는지도 잊어버렸다. 그때 핀란드 출신 어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사명'이 다시 떠올랐다(Anon, 2000, p. 136). 그는 그 임무가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Anon, 1979, p. 88).

문 앞의 안내자는 처음에 빌을 들여보내길 주저했다. 하지만 에비가 빌을 소개했고, 그는 안으로 들어 갈 수 있었다. 그날 밤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손님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 그때 마침 복음 전도 예배가 진행 중이었고, 설교 중에 그 모임의 지도자는 회개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초대했다(Kurtz, 1991, p. 18).

빌의 아내 로이스는 그 장면을 이렇게 회상한다.

빌은 크게 감동했고, 자기도 앞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을까봐 두려웠지만, 그래도 자리에서 일어나 방의 앞쪽으로 걸어 나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섰다. 그는 즉석에서, 준비도 없이, 금주에 대한 짧고 서툰 말을 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에비는 훗날 그 연설이 아주 이성적이고 진심 어린, 감동적인 말이었다고 전해 주었다.

(Anon, 1979, p. 88)

그 후 빌은 그 모임을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노숙자들이 잠을 자는 기숙사를 보았다. 회복에 성공한 몇 사람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잠자

리에 들기 전, 나는 오랜만에 다시 희망을 느꼈다. 단 한 방울의 술도 없이, 나는 아이처럼 깊이 잠 들었다.”

(Anon, 2005, pp. 60-61)

칼바리 미션 방문이 빌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음에도, 그 다음 날 새벽 2시경(12월 9일) 그는 다시 술에 손을 댔다(Anon, 2005, p. 61). 실제로 1934년 12월 8일과 9일 사이, 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술을 마셨다(Pittman, 1988, p. 152). 마침내 12월 11일, 빌은 네 번째 금주 치료를 받기 위해 Towns Hospital에 스스로 입원하기로 결심했다.

파크 웨스트(Park West). 빌은 클린턴 스트리트에 있는 집을 나서기 전, 아내 로이스에게 짧은 메모를 남겼다. 그 메모에는 사랑과 희망의 말이 함께 담겨 있었다. 로이스의 반응은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것이었다. 이 문단은 알-아논(Al-Anon)의 필요성을 잘 보여 주기에, 전문을 인용할 가치가 있다.

“빌은 내게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고 했다. 다시 술을 마실 게 뻔하니까. 그러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냐고 했다. 어차피 곧바로 다시 술을 마실 텐데 말이다. 집에 남아 있는 돈으로는—빌의 술값을 포함해—계속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이전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었다. 돈이 전혀 없었다. 그가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우연히 주머니에 들어 있던 몇 달러뿐이었다. 집에 있는 결혼 선물들을 팔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빌이 다시는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해 줄 수 있겠는가?”

(Anon, 1979, p. 89)

로이스에게 메모를 남긴 뒤, 빌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주머니에는 6센트가 전부였다. “괜찮아, 병원비는 빚으로 처리하면 되지.” 그는 술을 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과정에서 동네 주류점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외상으로 맥주 4병을 받아 병원으로 가는 길에 마셨다(Anon, 2000, p. 140). 그는 오후 2시 30분에 입원했고, 섬망·환각을 유발할 수 있는 벨라돈나를 포함한 여러 진정제로 치료를 받았다(Anon, 1991a, p. 13; Cheever, 2004, p. 114).

타운즈 병원에서의 빌 월슨의 영적 체험

에비는 Towns Hospital에서 빌을 찾아와, 옥스퍼드 그룹의 원칙들을 다시 한 번 들려주었다. 에비가 떠

난 다음 날, 빌은 이렇게 기록했다.

"우울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깊어졌고, 마침내 나는 내가 바닥에 닿아 있다고 느꼈다. 그때 갑자기,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 고집의 마지막 흔적이 산산이 부서졌다는 것을. 그 순간 나는 울부짖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자신을 보여 달라.'"

재음주와 파국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자기 의지의 완전한 붕괴(ego collapse)가 일어나는 지점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영적 경험"—이후 A.A.의 언어로 정식화될—이 시작된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절규에 대한 결정적 응답, 곧 빌이 평생 잊지 못한 병원에서의 각성 체험이 이어진다.

"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든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은 갑자기 강렬한 백색의 빛으로 가득 찼다. 나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환희의 상태로 끌려 들어갔다. 마치 거대한 산꼭대기에 서 있는 것 같았고, 순수한 영(Spirit)의 바람이 불어와 나를 완전히 휩쓸었다. 그러자 내 안에서 자유의 불꽃이 터져 나왔다.

(Anon, 2005, p. 63)

잠시 뒤 빌은 놀라 병원 책임 의사에게 물었다.

"제가 미쳐버린 건가요?"

그러나 Towns Hospital의 의사 실크워스 박사는 그를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당신 스스로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이전보다 분명히 더 나아졌어요."

(Anon, 1991a, p. 14)

빌 윌슨은 이 영적 체험 이후, 또 다른 음주 충동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많은 종교적·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평범한 정신병적 상태와는 질적으로 다른 '계시적 체

험'으로 이해해 왔다. 그것은 신이나 신적 실재와의 실제적인 만남, 혹은 보다 높은 차원의 의식과의 접촉으로 간주된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전에는 결코 인식하지 못했던 '의식의 확장'을 자각하게 된다. (Kreilighs experience?, 2014)

빌의 신비적 체험 직후, 에비는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윌리엄 제임스)의 책 한 권을 병실로 가져왔다. 이 책을 통해 빌은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된다.

가장 깊은 회심 경험들은,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깊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체험'을 포함한다는 사실이었다.

빌은 이후 용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이 체험 이후, 알코올에 대한 해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 번의 음주 충동도 없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see Appendix One)

영적 체험 직후, 로이스는 타운즈 병원에 있는 빌을 찾아왔다. 그가 집을 나서며 남겼던 메모를 읽을 때만 해도 회의적이었던 그녀는, 그를 직접 보고 나서 이렇게 썼다.

"나는 그를 보는 순간 알았다. 무언가 압도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의 눈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존재 전체에서 희망과 기쁨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부터 나는 그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졌다. 그가 마침내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집으로 걸어 돌아왔다."

(Anon, 1979, p. 89)

이 영적 체험 이후, 빌은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내가 이해한 하나님께, 겸손히 나 자신을 맡겼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나는 내 삶 전체를 그분의 보호 아래 두었다. 그 순간, 내가 살아오며 의지해 왔던 자기중심성(self-will)은 완전히 무너졌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길을 잃은 존재였음을 나는 마침내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는 무자비하게 내

죄와 마주했고 그분께서 뿌리째, 가지까지 모두 가져가시기를 기꺼이 허락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

(Anon, 2011, p. 38)

이것은 '집단 암시'나 감정 고양이가 아니라 → 개인 내부에서 일어난 급진적 구조 전환이다.

용의 언어로 말하면 자아(ego)의 붕괴 + 자기(Self)의 침입에 해당한다.

A.A. 12단계에서 말하는 "영적 각성(spiritual awakening)"의 원형적 장면이다.

이 체험이 일시적 황홀이 아니라 → 지속적 삶의 구조 변화로 어떻게 이어졌는가 가 중요하다.

빌은 타운즈 병원에서 에비와 나눈 대화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이 짧은 단락 안에는, 훗날 12단계의 여러 핵심 요소가 이미 담겨 있다.

"나의 도덕적 삶을 점검했고, 나의 잘못과 결함을 온전히 인정했다.

나는 내가 해를 끼쳤거나, 혹은 원망을 품게 했던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진정한 의지를 표현했다. 다만,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였다."

(Ibid.)

빌은 이러한 원리들이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느꼈다. 그것은 값비싼 대가를 요구했지만, 동시에 자기중심적 자기기만(self-centeredness)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에비는 나에게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Anon, 2011, p. 39)

빌은 그것이 핵심적인 원리라고 느꼈다. 다른 이들에게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자신보다 먼저 회복한 이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알코올중독자 익명모임(Alcoholics Anonymous)의 기원 이었다.

빌은 이렇게 기록한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수천 명의 절망적인 알코올중독자들이, 내가 얻은 이 무언가를 기꺼이 원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그들 중 일부에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 역시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지 모른다."

(Anon, 1991a, p. 14)

빌은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했고, 그 순간부터 알코올중독자들 사이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메시지와 원리들을 다음 사람에게, 또 다음 사람에게 전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한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제 다른 알코올중독자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Anon, 2005, p. 64)

그는 1935년 가을, 뉴욕 옥스퍼드 그룹의 지지에서 벗어나, 이 새로운 방식으로 알코올중독자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그는 수십 명의 알코올중독자들과 접촉했지만, 초기에는 거의 성과가 없었다. 그러던 중 애크런(Akron)으로 가는 출장 중에, 그는 다시 한 번 다른 알코올중독자와 연결되었고, 그에게 이 원리들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밥 스미스(Bob Smith)였다.

이들은 함께 비전을 품고, 다른 알코올중독자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기 시작했다. (Anon, 2011, p. 39)

"아내와 나는, 다른 알코올중독자들이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돕는다는 이 생각에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맡겼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걸린 일이었다."

개인적 영적 체험 → 윤리적 실천 → 타자에게의 전달

회복은 '나 혼자 낫는 사건'이 아니라, → 관계 안에서만 지속되는 구조로 전환된다.

용의 언어로 말하면 자기(Self)의 체험이 '공동체적 형태'로 조직된 순간이다.

A.A.는 치료 기법이 아니라 → 삶의 태도와 구조의 전환을 전염시키는 과정으로 시작된다.

"나의 옛 사업 동료들은 거의 1년 동안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그 동안 나는 술을 마시고 싶은 강한 충동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회복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이기심과 원망의 파도에 휩쓸렸다. 그것은 때때로 나를 다시 술로 몰아가려 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할 때마다, 또 다른 알코올중독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그날을 살게 해주었다. 여러 번 나는 거의 절망 상태까지 갔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는 놀랄 만큼 가벼워졌고,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빌은 알코올중독자들을 옥스퍼드 그룹에 소개했다. 그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이 적어도 자신의 금주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